

미세먼지 심한 날 학교 못 가면 '질병 결석'

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호흡기취약 학생 등 결석 인정

내년까지 실내 체육시설 완비

앞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아토피·천식 등을 앓거나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로 실외 공기가 혼탁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할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 학생은 학년초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질병 결석이 인정되면 등교시간 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해야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직접인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며 출석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원하고 있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다.

봄과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도 체육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실내 체육관 등 시설설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7년 말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곳)에 간이 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 2019년 말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을 마련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유치원 포함) 조치사항도 개선됐다. 학교에서는 평시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현황을 숙지하고 황사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도 준비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담당 교직원들은 학생 대상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외출시 마스크 쓰기 등이다. 실외수업은 자제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물청소도 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외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은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경우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은 물론 임시휴업도 가능하게 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조선대, 지역 생체의료산업 지원 강화

중기부 사업비 17억원 확보

으로 기대된다.

조선대학교 치과RIC센터(센터장 김수관)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모두 17억43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조선대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영역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대학교(총장 강동원)에 따르면 치과RIC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서 시·도 주력산업(주력사업 비R&D 분야)과 시·군·구 연구 사업(풀뿌리기업R&D 분야) 등 두 개 부문에 선정됐다.

비R&D사업은 '디지털 생체의료산업과RIC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서 시·도 주력산업(주력사업 비R&D 분야)과 시·군·구 연구 사업(풀뿌리기업R&D 분야) 등 두 개 부문에 선정됐다.

이전에 선정된 지역주력사업은 치과, 정형외과, 콘택트 렌즈, 보청기 등 디지털 기반 소재부품 및 생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게 사업 골자다. 생체의료산업 클러스터 거점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소득 증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

또한 지역연고산업(풀뿌리기업R&D)은 시·군·구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등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화지원 관련 산업의 전통적 요소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집목,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를 돕는다.

조선대 치과RIC(센터장 김수관)는 광주 주력산업인 디지털 생체의료산업과의 융·복합형 신제품R&D 지원 강화 및 지역 내 타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2곳의 참여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치과병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융합 덴탈헬스케어 개발 및 산업화'를 진행한다. 광주 소재 치과 관련 수혜기업을 공모, 지역제품의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의료산업(치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다각화와 국내시장 활성화 및 동남아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 내 주력산업과의 연계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치과산업의 매출과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전에 선정된 지역주력사업은 치과, 정형외과, 콘택트 렌즈, 보청기 등 디지털 기반 소재부품 및 생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게 사업 골자다. 생체의료산업 클러스터 거점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소득 증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동부 특수교육센터

음악·체육활동실 새단장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근 음악·체육활동실을 리모델링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노후 교육실 리모델링을 추진, 음악활동이 가능한 '도담실'과 체육활동이 가능한 '소담실'을 완공했다.

도담실은 노래방 시스템, 음악치료용 교구, 악기 등을 갖춘 이벤트 행사 및 다양한 음악관련 활동이 가능해졌다.

소담실은 벽면 전선 거울, 바닥 난방, 볼링 등 놀이치료 도구를 갖춘 무용,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체육관련 활동이 가능해졌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새단장한 시설을 바탕으로 지난 2일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함께 리듬놀이, 율동놀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정서·신체 발달을 돕는 놀이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반응은 예상보다 좋아 지난 6일 기준으로 리듬놀이 활동에 15개교 75명, 율동놀이 활동에 12개교 71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첫 번째 수업으로 진행된 율동놀이에 학생과 함께 참여한 광주계림초 김소진 특수교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율동놀이에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열심히 따라하는 학생을 보니 참여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옛날 교육실보다 놀 것도 많고 좋아졌다", "바닥이 따뜻하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지는 교육활동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측은 전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광주시 북구 중흥2동 동부교육지원청 안에 자리잡고 있다. 문의 062-605-5527.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동신대학교가 최근 지역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동신대 '진로 체험' 고교생 전공찾기 돕는다

동신대학교가 광주와 전남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신대는 참여학교와 학생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등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진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신대(총장 김필식)는 지난 6일 광주 정광고를 시작으로 오는 6월8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14개 고등학교, 3600여명의 학생들을 대학으로 초청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

학생들에게 대학 곳곳을 둘러볼 수 있게 하고, 동신대 홍보 동영상 보고 2019학년도 입학 설명을 듣는 '미니 입학설명회'도 갖는다.

미니 입학설명회가 끝나면 학생들은 자신이 미리 신청한 학과로 이동해 전공별 학교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특강을 듣고 상담을 받는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스스로 진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했다.

나주 읍성, 아동청소년예방상담센터 등

공공기관과 역사 문화 자원을 방문하는 외부 견학도 진행한다.

동신대 고등학교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여개 학교, 2400여명이 참여했다. 1년 새 참여 학교와 학생 수가 4곳, 1200여명이 늘면서 고등학생들의 진로 교육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동신대는 광주와 전남지역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고교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5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기존 고교연계프로그램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별도로 추진하는 등 중·고교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일하고 싶은 여성 새출발 도와요"

동강대 공예과정 진행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손재주가 좋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사회생활을 적극 돕는다.

동강대 평생교육원(원장 유우준)은 오는 28일부터 '2018년 북구 특성화사업 선정 무류학교 솜씨 언니 공예과정'을 진행한다.

동강대는 경단녀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미니틀, 틸다 인형, 규방공예, 매듭공예, 한복공예, 디자인 가

죽공예 등을 지도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강생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수강생은 강사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이번 '무류학교 솜씨 언니 공예과정'은 무료이며 재료비 5만원은 별도다. 수강 신청은 전화(062-520-2300) 또는 팩스(062-520-2517)로 가능하다.

유우준 원장은 "경력단절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 취·창업의 실질적인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차이나센터 대학생 한·중 서포터즈 15일까지 모집

광주시 차이나센터(센터장 조경완 호남대 교수)가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차이나센터 한·중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

중국과 중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각종 문화에술행사 기획을 위한 온라인콘텐츠 제작·홍보(기사·이미지·영상)와 행사 현장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광주시 차이나센터는 올해 '중국 문화주간', '찾아가는 중국 문화체험', '청소년 중국 문화체험교실' 등 다채로운 행

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활동복, 활동용품, 상품권, 수수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활동 서포터즈를 뽑아 '광주 시장명의 표창'을 시상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차이나센터 공식 홈페이지(gwangjuicf.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lee.jh@honam.ac.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383-8868. /윤영기기자 penfoot@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리카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